| 현불 논단 |

제2 대승불교 운동이 필요하다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500년 후
부파불교 혁신한 대승불교 등장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

12세기 인도서 불교 자취 감춰
대중성 잃어 승보 없었기 때문

現 한국불교도 안심 못할 상황
발전, 예측말고 개혁해야 가능
개혁을 이끈 부처님 본 받아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할 당시에 사문(śramana)들이 출현했다. 이들은 바라문교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어 자유로우면서도 개혁적인 종교운동을 주도했다. 이 사문 가운데 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시대의 구태의연함에서 탈피한 것을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Karl Jaspers)는 '인류 발전의 축(軸)'이라고 찬사했다. 특히 불교는 당시 사회 통념이었던 카스트 제도나 제사(供犧)를 부정한 신흥 종교였다. 또한 부처님은 당시 수행자들이 행했던 고행과 선정이 아닌 중도에 입각해 해탈을 추구함으로서 불교가 시작되었다.

불멸(佛滅) 후 500년이 지나 대승불교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로 되돌아가자'는 신운동을 펼쳤다. 즉, 기원전 1세기에 시작된 대승불교 또한 당시 교단에 대한 반발이었다. 지나치게 법(法, Abhidharma)에 천착했던 부파교단에 반발하면서 출가자만이 아닌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종교운동이 대승불교이다. 그러면 이 대승불교를 주도한 이들은 누구인가? 대승불교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로서 전생 인행(因行)으로 현생에 부처가 되었듯이(果德) 자신들도 보살이라고 지칭하며, 보살사상을 내세웠다. 보살 중에는 뛰어난 승려도 있었지만, 신심 충만한 재가자들이 함께 했다.

대승불교가 일어난 지 1000년이 지난 12세기에 불교는 인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 원인으로 이슬람교도들이 승려들을 살해하면서 불교가 패망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불교가 지나치게 학문적이고 철학적이어 대중성을 잃었다는 분석도 많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는 데는 불보·법보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승보(승가)의 소멸로 불교가 추락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불교도 인도와 같은 현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근자에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면, 관심 주제가 출가자 부족이다. '앞으로 30년 이후의 불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구동성으로 토로한다. 대부분이 한숨과 한탄 뿐이다.

지난 3월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질의에서도 출가자 문제가 거론되었다. J스님은 "종단 현황을 보면 출가자는 적고 고령자 추세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학과 수행을 구족하게 해서 불교계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미래 출가 승가의 대안, 그리고 종단 차원에서 해외 불교국가의 청년 출가자 교육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출가자와 관련된 종책 질의는 안타깝게도 처음이 아니다. 매년 거론되는 문제이고, 답변하는 부장 스님들마다 한결같다. "교육원만이 해결할 수 없고, 종단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현대불교신문, 3월 23일자). 솔직히 누구를 탓할 수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누구에게 답을 구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20여년 전 4~500명의 출가자 시대로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출가자 부족은 '인류문화의 시대적인 흐름'에 속해 있다. 한탄과 이론 제시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진보적인 현실 직시가 필요하다. 미래는 예측할 것이 아니라 개혁해 나가고 만들어가야 한다. 승가 교육에 대한 비전을 지금 실시해도 늦었다. 시행착오를 겪을 지라도 어떤 제시든 시작이라도 해야 한다. 출가자가 부족하면, 재가 불자들이라도 교육시켜야 다르마가 만대에 이어질 것이 아닌가!

부처님도 사문으로 출가해 사회 변화를 주도했고, 성도하실 때도 관습화된 고행과 선정이 아닌 중도를 제창한 개혁자였다. 또한 대승불교를 주도한 보살들 또한 당시 부파교단에 대한 진보주의자들이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불교도들은 개혁주의자였던 부처님처럼, 대승불교를 주도한 보살들처럼, 제2의 대승불교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인가. 간절히 소망한다. 나무아미타불.

社說

완벽 방역 '연등회'로 치러지길

부처님오신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심상치 않다. 4월 8일 현재 하루 확진자 수가 700명을 기록하며 다시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해 연등회를 취소해야 했던 불교계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올해에는 불교계도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4월 8일 조계종 원로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연등회는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연등회 연등법회는 기존 동국대 운동장이 아니라 조계사에서 봉행되며, 연등행렬은 조계사를 중심으로 간략히 진행된다. 행렬코스도 조계사부터 안국동사거리, 공평사거리로 대폭 축소됐다. 이들 행사는 줌, 유튜브, 불교계 방송을 통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중계된다고 한다.

전국도 마찬가지다. 불도(佛都) 부산의 불교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봉축연합대회와 연등행렬을 취소했다. 대신 5월 1일부터 16일까지 송상현 광장에서 코로나19 극복·국운 융창과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이어간다고 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선보이는 차량을 이용한 연등행렬도 코로나19 시대를 넘기 위한 지역불교계의 눈물겨운 노력이다.

올해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이후 첫 연등회로 더욱 의미가 있었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정상과 버금가는 연등회도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역병은 다시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연등회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대폭 전환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 소규모 행사들도 확진자 '0'을 위해 완벽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완벽 방역' 연등회를 기대한다.

지자체, 가톨릭 성지화 자중을

200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가톨릭 성지가 급증했다. 순교지와 탄생지, 거쳐간 곳이 성지가 되고 교황이 발을 디딘 곳까지도 성지가 되고 있다.

성지를 기념하는 기념관 등이 건립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성지와 성당 등을 잇는 가톨릭순례길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지역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 및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전국토의 가톨릭 성지화가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가톨릭 성지화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무엇보다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점이 200여년 남짓한 종교라는 점에서 그렇다. 가톨릭 성지는 대부분이 종교적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문화와 별개로, 한반도의 외래종교로서 탄압받았던 역사적 사실이 가톨릭 성지를 만들어낸 굳건한 토대다. 물론 가톨릭 신자들에겐 신심을 고취시키는 의미있는 장소겠지만, 국민들에게도 그럴지는 되짚어봐야 할 문제다.

더욱이 이렇게 탄생한 가톨릭 성지가 그 장소에 원래 존재했던 역사와 종교를 덮어버린다면 어떨까. 천진암, 주어사지, 해미읍성, 서소문, 남한산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종교 성지화는 신중해야 한다. 특히 그 종교가 한반도 5000년 역사에 비해 극히 짧은 200년 남짓의 역사를 갖고 있을 경우 더욱 그렇다.

한반도에 뿌리깊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깊이 스며있는 불교문화들이 가톨릭 성지 확산으로 자칫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또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정작 지역 곳곳에 스며있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정서가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임종기도

올해 1월 1일 전국비구니회관 내 '전국비구니회 CPE센터'를 개원하고 3월부터 8명의 학생들과 첫 CPE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학생이 임종기도의 케이스(Case)를 준비해 와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다. 임종을 진행 중이고 또 가족들은 오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임종기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중에 나의 경험 속 한 환자와 가족들이 떠올랐다.

S병원의 병원지도법사로 있을 당시였다. 도선사에 다닌다는 한 보살이 남편과 함께 병원법당을 찾았다. 남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해 동네 병원의사의 추천서를 들고 S병원을 찾아 검사하고 결과를 듣고 나오는 길이라며 보살님이 말을 하던 중 눈물이 터졌다.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의 눈에서도 한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보살은 본인의 일을 정리하고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남편을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거사는 병원에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임종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림 · 최주현

자정 무렵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살님의 연락을 받고 나는 부리나케 병원으로 달려갔다. 연락을 받고 온 가족들이 임종실을 꽉 메우고, 오열하는 소리가 호스피스 병동 입구까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우선 가족들에게 "환자분이 이생과 작별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가시는 길에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니 모두가 울음소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나는 간단한 광명진언으로 환자와 가족을 안심시킨 후 환자에게 말했다.

"거사님, 한 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열심히 사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가족들 인사도 시키고 거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환자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다. 울음이 터지는 것도 참아가며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정성스러웠다. 죄송하고 용서를 비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은 내가 부처님께서 남편을 극락왕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발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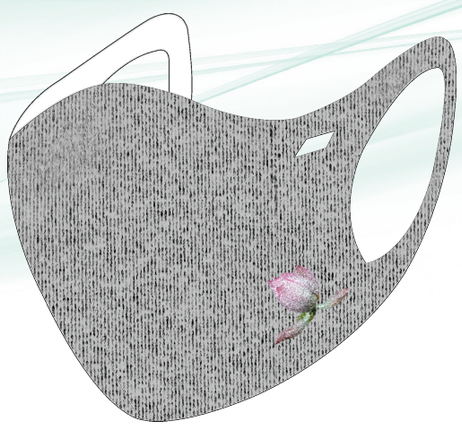
나는 가족들에게 "경전을 보면 아버님의 마지막 한 생각이 다음 생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부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한 생각을 놓치지 않도록 가족들이 아버지를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왔다.

나중에 간호사에게 들으니 환자가 임종할 때까지 가족들은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며 마지막을 함께 했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10-5640-8883 대구지사 : 010-2813-8008
경남지사 : 010-3860-7008 영주지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북지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KOVI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마스크
FDA 등록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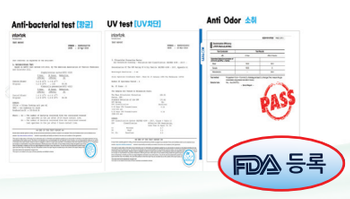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기능성 비말차단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